



the Aegean Sea

올 여름에는 에게해로 떠나자!

코발트빛 바다가 넘실거리는 에게해. 눈을 지그시 감고 에게해의 파도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른다. 올해 여름에는 머릿속에서만 꿈꿔왔던 에게해의 섬들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미코노스, 산토리니, 크레타, 로데스, 파트모스 등 아름다운 풍광과 유적이 어우러진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에게해!



파르테논 신전



미코노스

까사 비앙카의 섬, 미코노스

그리스의 섬에서 여름을 즐기기 위해 먼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떠났다. 산토리니가 목적지라 해도 신화의 도시, 아테네를 건너뛸 수는 없는 일. 소크라테스가 활약했던 파르테논 신전부터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수니온 곳을 둘러보고 본격적인 섬 여행을 시작했다. 아테네와 에게해의 섬을 이어주는 배는 5세기에 만들어진 항구도시인 피레우스에서 출발했다.

새벽에 출발하는 배라 시인 호메로스가 말한 포도주 빛 에게해를 보는 것은 다음날로 미뤄야 했지만, 눈앞에 펼쳐질 풍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새벽에 탄 배는 오전 8시쯤 미코노스에 도착했다. 잠에서 깨부스스 바라본 미코노스의 쪽빛 하늘과 바다, 그리고 촘촘히 늘어서 있는 하얀 집들은 이곳이 미코노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나타나는 고양이들과의 숨바꼭질,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 미토스 한 병,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기념품 가게들이 동화나라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보니, 하얀 페인트로 집을 칠하고 있는 주민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행자들에게 미코노스의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백제로 세탁한 깔끔한 와이셔츠처럼 페인트로 끊임없이 까사 비앙카(흰 집)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역시 특별함을 만드는 데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

찬란한 색들의 끝없는 향연, 산토리니

산토리니는 미코노스와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항구에서 보이는 것은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밖에 없었다. 산토리니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환람동안 절벽을 올라가야 했다. 막상 산토리니의 꼭대기 이야 마

을에 가니, 항구와는 180도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장엄한 자연과 하얀 집들의 강렬한 대비, 그야말로 눈부신 색의 향연이었다. 하얀 집, 파란 대문, 시시각각 다른 색을 연출하는 바다, 그리스 정교회의 파란 지붕, 여기에 부겐베리아의 붉은 빛까지 더해져 선명한 색의 잔치는 끝이 없었다. 일주일간 머물렀던 산토리니에서는 에게해가 앞에 펼쳐진 이 마을의 루프 가든 카페에서 매일 일기와 엽서를 썼다. 매일 카페에 다니다 보니 친구도 생겼다. 산토리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섬을 떠나지 않았다는 60대 마가렛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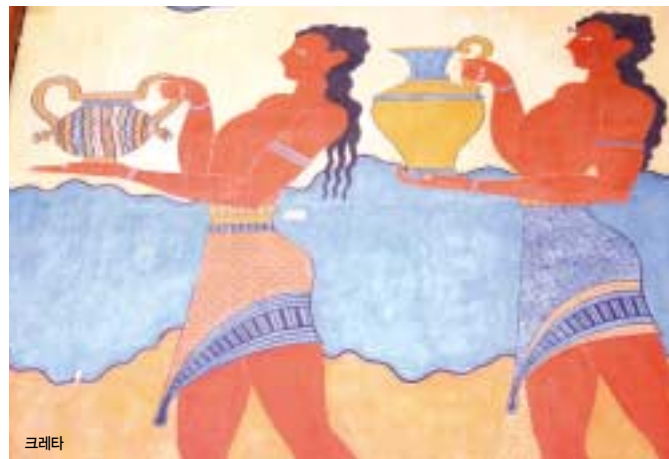
그윽한 눈빛으로 “너무 아름답지? 산토리니는 나의 섬이야.”라던 그녀를 보면서 마음 한 켠에 부러움이 일었다. 아틀란티스의 일부분이라는 전설을 간직한 산토리니처럼, 마가렛 할머니도 그녀만의 전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다.

조르바의 섬, 크레타

일주일간 산토리니의 색감에 푸욱 빠져 있다가 호탕한 자유인 조르바의 섬, 크레타로 향했다. 크레타는 에게해 남단에 동서로 길게 놓여있는 섬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다른 섬과 달리, 섬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보다도 역사와 문학이 주는 그윽함이 깔려있는 섬이었다. 어디에선가 불쑥 산투리(크레타 전통 악기)를 치며 깔깔 웃는 조르바가 나타날 것만 같고, 스페인의 유명화가 엘 그레코 그림의 한 조각을 만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다른 어떤 곳도 에게해처럼 쉽게 현실에서 꿈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처럼, 크레타를 돌아다니던 나의 상상력은 타임머신을 탄 듯, 공간이동을 하듯 시공을 넘나들고 있었다. 🌀



산토리니



크레타